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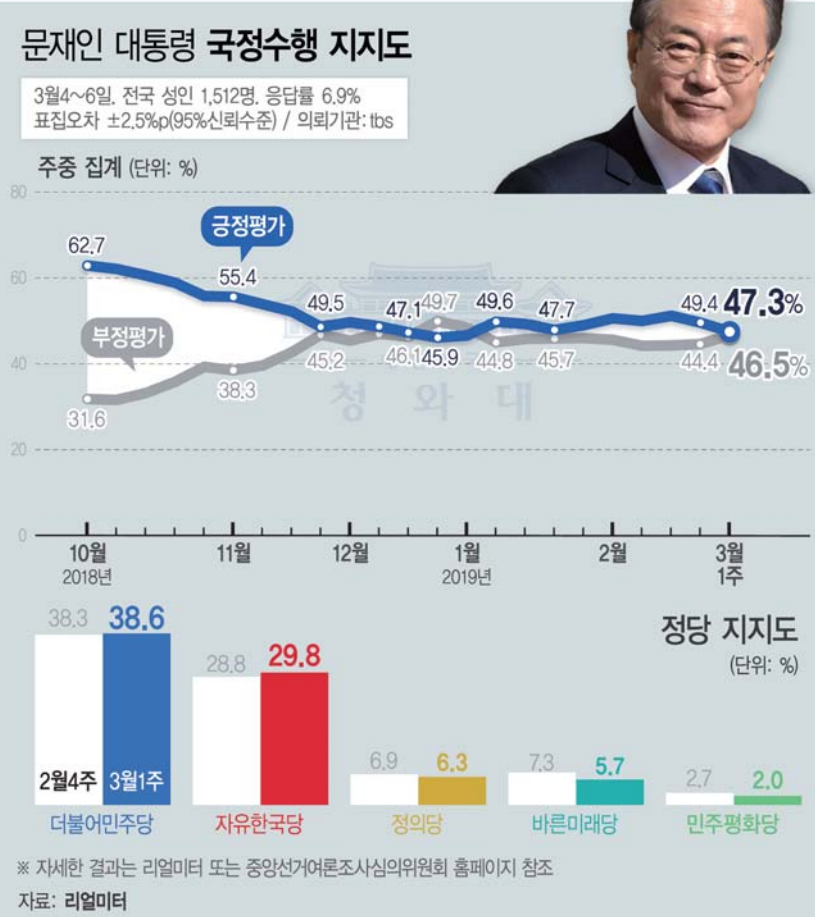
文대통령 지지율, 2.1% 하락한 47.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1%p 내린 47.3%를 기록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4~6일 전국 성인 1,512명, 응답률 6.9% 표집오차 ±2.5%p(95%신뢰수준) / 의뢰기관: tbs

미세먼지 소극 대응·북미 정상회담 결렬 여파 한국당, 국정농단 전인 2016년10월 이후 최고치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1%p 오른 46.5%(매우 잘못함 29.3%, 잘못하는 편 17.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지난주와 같은 6.2%였다. 긍정·부정평가 간 격차는 0.8%p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이번 하락세에 대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소식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주초 일간락된 한유총 개화연기 사태가 지지율 하락 폭을 둔화시킨 측면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7%p, 49.9%→43.2%, 부정 48.7%), 부산·울산·경남(↓6.5%p, 44.8%→38.3%, 부정 58.9%), 경기·인천

(↓2.8%p, 52.2%→49.4%, 부정 43.1%), 서울(↓1.2%p, 49.7%→48.5%, 부정 45.9%)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반면 전라(↑5.9%p, 66.2%→72.1%, 부정 21.2%)와 대구·경북

(↑4.8%p, 29.7%→34.5%, 부정 60.9%)에서는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7.2%p, 63.3%→56.1%, 부정 37.0%), 50대(↓4.1%p, 47.1%→43.0%, 부정 55.4%),

20대(↓1.5%p, 44.2%→42.7%, 부정 46.9%)에서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무직(↓11.9%p, 46.9%→35.0%, 부정 51.8%), 노동자(↓6.5%p, 53.1%→46.6%, 부정 46.7%), 사무직(↓2.6%p, 63.4%→60.8%, 부정 34.4%), 학생(↓1.1%p, 40.3%→39.2%, 부정 53.0%)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가정주부(↑4.1%p, 38.0%→42.1%, 부정 51.2%), 보수층(↑3.4%p, 22.2%→25.6%, 부정 71.5%)에서는 상승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0.3%p 오른 38.8%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미세먼지 악화 등 약재가 이어졌으나 한국당과 입장이 뚜렷하게 대비됐던 한유총 개화연기 사태가 일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지난주와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대비 1%p 오른 29.8%로 조사됐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주차(30.5%) 이후 약 2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상승세는 지난주 끝난 2·27 전당대회 효과와 미세먼지 악화에 의한 반사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의당(6.3%), 바른미래당(5.7%), 민주평화당(2%)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문희상 의장이 개회하고 있다.

文의장 "15년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민생입법 신속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 들어 처음으로 국회가 열린 7일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회사를 통해 "3월 신화기를 맞이하는 신인생의 마음으로 삼기일진 신발 끈을 고쳐 매자"며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 되는 날이다. 제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이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2000여건 가운데 73%가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고, 개회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

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청원 시스템 개편안, 국회선진화법 제도개선, 법사위 체계와 지구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리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 폄해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 등 총 18건을 일괄 상정해 논의한다.

그는 "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 중 결론을 낸 것은 단 건도 없다"며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때가온 비판에 직면할 수 없다. 국회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국회의 역할도 피력했다.

그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남북이 모두에게 평화는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 없어야 한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마무리해 국회사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분골쇄신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홍준표 "내게 '막말' 비난한 이들 사과하라"

"북미 회담 위장 평화 주장 비난한 세력들 후안무치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과거 당내에서 나를 막말 대미왕"이라고 비난하며 선거 유세에도 나서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싱가포르 회담 당시 그 회담의 본질을 꿰뚫기가 아닌 북의 위장 평화라고 주장했던 나를 비난한 문재인 정권, 당내 일부 세력, 언론들의 달린 최근 논조를 보면 후안무치하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판단을 그때 하지 못하고 김정은의 위장 평화에 속았

다만 최소한 나에게 막말로 매도한 일들에 대해 사과는 못할지언정 대국민 사과는 하고 난 뒤 논조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며 "(매도한 후) 전연덕스럽게 정반대의 논조를 펴는 것은 정도를 걷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정권과 언론은 그렇더라도 그 당시 당내 사람들이 이라도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며 "세상을 미리 본 죄라고 말한 바 있다. 나라의 앞날이 우려되며 이미 유튜브를 통해 밝힌 대로 이제 절대 안보 개념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뉴스스

장병완 "한국당, 5·18망언 징계 애매모호"

"김순례 최고위서 발언하고 징계 논의 의총 진전 없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5·18 망언 의원들을 전당대회 후 징계한다더니 태도가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이 발언을 했고 이종명 의원 징계안에 대한 의원총회 논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대로라면 미래로 향하겠다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다짐은 공허한 수사가 될 뿐"이라며 "미래로 나아가지는 본인의 말과는 달리 역사 퇴행적 수구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반헌법, 반

민주적인 망언에 대해 신속하게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황 대표는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징계안이 상정된다"며 "다른 어떤 안전보다 앞서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8은 입법·헌법·사법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며 "민주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우리 평화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